

통상교섭본부장, 英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대러 LNG 수입 제재 등 현안 논의

- 에너지·철강 업계 우려 전달 및 한-영 FTA 개선협정문의 조속한 발효 협력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9.11(금) 대한상에서 조나단 레이놀즈(Jonathan Reynolds) 영국 신임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상호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박 본부장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가 우리 LNG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특히 영국 재보험사가 러시아산 LNG 도입계약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유럽연합(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7.23 발표)에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대한 예외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영국 또한 기존 계약에 대한 예외를 검토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

또한 영국이 '26.7월부터 시행 중인 신철강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對英 시장접근이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영 양국이 WTO 및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안정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하여, 동 조치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25년 12월 타결된 한-영국 FTA 개선협정의 조속한 서명·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동 개선협정은 원산지 기준 완화, 서비스·조달시장 개방 확대 등 기존 협정 대비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진출과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와 통상 현안 해소를 위한 소통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협상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830)
		담당자	사무관	송영택 (044-203-5834)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한주실 (044-203-5940)
		담당자	사무관	조석인 (044-203-5943)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한주현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윤철희 (044-203-5232)